



가수 이무송(왼쪽)·노사연 부부는 “결혼은 서로의 다름을 알아가면서 절충해가는 과정”이라며 “투닥대며 사는 게 재밌다. 다시 태어나도 만나고 싶다”고 애정을 드러냈다.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동상이몽2’ 전우애 부부 이무송·노사연

연애 때처럼 여전히 설레요 다시 태어나도 또 반하겠죠

- 이무송

- 노사연

월요일 밤마다 주부 시청자들의 마음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가수 노사연(61)·이무송(59) 부부. SBS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 출연해 여전한 부부애를 과시하고 있다. 1994년 결혼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성격 탓에 지금도 자주 의견충돌을 일으키지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자신의 것을 때론 포기하면서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전우애로 뭉친 군대동기”라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린다.

27일 파스한 봄 햇살이 쏟아지는 서울 이촌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노사연·이무송 부부는 나란히 앉아 서로의 얼굴에서 눈에 띄지 못했다. 노사연은 이무송의 얼굴에 난 땀을 닦아주며, 케이크도 입에 넣어준다. 이무송은 자연스럽게 받아먹고 노사연의 손을 잡는다. 젊은 커플들 못지않게 서로의 손을 잡고 몸을 터치하는 스킨십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이무송은 “결혼한 지 30년 가까이 되면 부부가 알만한 것들은 다 알아 신비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연애 때와 지금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나 그 사

간 무섭더라. 지금보다 더 잘 해야 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괜찮는데, 남편이 욕을 먹는 건 싫어서 이전과 달리 주변 시선을 신경 쓰게 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래서 노사연은 자택은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 연예인으로서 공개된 삶을 살지만 “평생의 안전지대”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자택만큼은 ‘자연인 노사연’의 공간으로 두고 있다. “집 공개는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 부담스럽다”고 했다.

노사연과 이무송은 다른 듯 많이 닮아있다. 노사연은 사랑을 표현해주길 바라는 스타일이고, 이무송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이무송이 노사연의 사랑을 확인하는 질문을 하는 등 정반대로 바뀌기도 했지만 연애 당시에는 전혀 달랐다. 노사연은 미국생활을 오래 한 이무송이 할리우드 로맨틱 영화에 나오는 멜 깁슨 같은 자상한 성격일 줄 알았다고 한다. 하지만 만나보니 그는 “이조시대 정승 영감”이었다.

“나의 이상에서 현실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 남편이 ‘30년은 본인과의 싸움이었을 것’이라고 하더라. 하하!”(노사연)

이무송

부부 싸움? 함께 나가 걷다보면 풀려
아내와 투닥투닥하며 사는 게 즐거워
방귀도 안 터…남녀로서 지키는 부분

노사연

병 주고 약 주고…결국 따라가게 됐죠
관심 집중…혹시 남편 욕 먹을까 걱정
신혼 때부터 함께 자는 침대 ‘재산 1호’

람의 모양이 달라졌을 뿐 사람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설레다”고 했다.

이들 부부의 설렘은 각자의 프라이버시를 조금씩 지켜주는 데서 만들어지고 있다. 서로 앞에서 방귀를 끼지 않고, 웃을 갈아입을 땀 비껴주고 흘려땀 뺏지도 않는다. “누군가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부이기 전에 남녀로서 서로를 지켜주고 남겨두는 부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신혼 때 구입한 퀸 사이즈 침대에서 지금도 함께 잔다. 각방을 쓰거나 한 방에 침대 2개를 놓고 생활할 뻔한 ‘위기’도 있었지만, 결국엔 어려웠던 시기를 잘 넘겼다. 슬하의 아들이 미국 유학을 떠나면서 둘이 지내는 시간이 많이졌고, 서로에 대한 애투함도 커졌다.

노사연은 “으르렁대고 싸우면 밋다가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남편이 옆에 없으면 행하고 하전하다. 일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떨어져 적은 있지만 그보다 긴 시간은 없었다. 같이 눈을 감고 뜨는 이 침대가 나에게는 재산목록 1호다”고 했다.

변함없이 서로에게 애정을 보이고 살갑게 대하지만, 방송에서 소개됐듯 아웅다웅하는 일도 많다. 그런 모습에 “속이 시원하다” “우리 집 얘기 같다”는 주변 이야기를 자주 접하곤 한다. 이무송은 “아내에게 잘 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기도 했다. 특히 연예계 대표 잉꼬부부인 최수종·하희라를 이어 합류한 까닭에 방송 초반에는 “남자는 잘 해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걱정도 꽤 컸다.

노사연은 “잡자기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니 어느 순

연애시절부터 지금까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절충하며 각자를 인정해가면서 살아오고 있는 것이다. 식습관이 맞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모닝 고기파티’도 25년째 하고 있으며, 싸운 뒤에는 항상 이무송이 노사연의 손을 이끌고 외출한다.

이무송은 “일단 싸움이 벌어진 공간을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 (웃음) 나가서 쇼핑하고 영화보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걷다보면 자연스럽게 풀린다. 나라고 먼저 손을 건네고 싶었다. 아내이고 아이 엄마이기에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노사연은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안 따라갔는데, 지금은 익숙해지니 따라가게 되더라”며 웃는다.

“아내와 투닥투닥하며 사는 게 즐겁다”는 이무송의 말에 노사연은 더 나아가 “싸우면서 사는 게 재밌다”며 웃는다. 덧붙여 “매일 부딪히다가도 남편이 없으면 편해야하는데 그렇지 않다. 싸워도 남편의 부재에 아쉬움을 느낀다. 앞으로 지금처럼 서로에 대해 알아가며 더욱 친해지고 싶다”고 했다.

노사연과 이무송은 다시 태어나 지금의 인연이 된 당시 첫 만남의 순간에 놓인다면 “또 첫 눈에 반할 것 같다”고 말한다. 노사연은 “지금과 같은 성격이 아니었으면 좋겠지만(웃음) 당시 그 모습 그대로 이무송을 만난다면 사랑에 빠질 것 같다”고 했다. 이무송도 “노사연은 나와 달라서 매력적이었다. 다시 만나도 지금처럼 다른 부분을 극복하고 절충해가면서 살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연예뉴스 HOT 5

케이팝스타 참여 통일노래 8월 발표

유명 케이팝 가수들이 참여하는 새 통일노래가 8월 발표된다. ‘원 케이(One K) 글로벌 캠페인’ 조직위원회는 29일 “20여 명의 케이팝 가수가 참여하는 새로운 통일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직위에 따르면 해당 노래는 원 케이 글로벌 캠페인 총괄감독인 작곡가 김형석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만든 곡이다. 참여 가수는 엑소 백현, 방탄소년단 정국, 갯세븐 영재, 걸스데이 민아, 레드벨벳 웬디, 씨스타 출신 소유 등이다. ‘원 케이 글로벌 캠페인’은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고 세계인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캠페인. 2015년 케이팝 스타들이 참여한 ‘원 드림 원 코리아’와 인순이가 부른 ‘하나의 꿈’, 2017년 국내외 음악인들이 참여한 ‘코리아 드림’ 등을 선보였다.

애프터스쿨 정아, 농구선수와 결혼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정아(김정아·35)와 프로 농구 창원 LG 세이커스 정창영(30)이 28일 오후 2시30분 서울 논현동 뉴힐담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정창영의 대학동기이자 절친한 농구선수인 유성호가 사회를 맡은 이날 결혼식에서 애프터스쿨 출신 레이나와 바다, 한동근이 축가를 불렀다. 레이나 외에도 리지, 유소영, 이주연 등 애프터스쿨을 함께 했던 옛 멤버들이 이날 결혼식장에 모였다. 정아와 정창영은 하와이로 5박7일간 신혼여행을 떠났으며, 신혼집은 서울 신당동에 마련했다.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2015년 열애 사실이 알려졌다. 정아는 29일 인스타그램에 “많이 축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살면서 보답할게요”라고 인사했다.

조현훈 감독, 성추행 피해자에 사과

독립영화 ‘꿈의 제인’으로 주목받은 조현훈 감독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돼 사과했다. 조현훈 감독은 2013년 인디포럼 참석 당시 폐막 뒤 풀이 술자리에서 한 여성을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입은 여성은 최근 영화주간지와 인터뷰를 갖고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조현훈 감독은 27일 SNS를 통해 “저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셨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술에 취해 기억을 잃었다”며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려 했지만 그것 역시 피해자에게 부담과 고통이 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향후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알렸다. 조현훈 감독은 지난해 서울독립영화제 관객상, 디렉터스컷시상식 올해의 신인감독상 등을 받았다.

서경덕 교수, 韓 역사 실검 프로젝트

한국홍보 전문가인 서경덕 교수(성신여대)가 방송인 알베르트 몬디, 다니엘 린데만과 함께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의 의거 등 역사적 기념일을 기억하자는 취지의 ‘대한민국 역사, 실검 프로젝트’를 펼친다고 29일 밝혔다. 포털사이트 실시간검색순위의 준말인 ‘실검’ 프로젝트는 우리의 역사적인 날에 맞춰 그날의 정확한 한국사 지식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파일로 제작해 SNS로 퍼트리는 역사교육 캠페인이다. 첫 캠페인은 1932년 4월29일 윤봉길 의사가 중국 상하이우공원에서 폭탄을 던져 우리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린 의거를 소개하는 내용이다. 서경덕 교수는 “내년에는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에 맞춰 대한민국 독립운동 역사를 알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남, 5중 추돌사고 “큰 부상 피해”

가수 강남이 공개방송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추돌 사고를 당했다. 강남은 28일 공개방송 출연을 위해 충북 청주로 이동하던 중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5중 추돌사고를 당했다. 차량에 탑승한 강남과 스타일리스트, 매니저는 사고 직후 충북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처치를 받았다. 강남은 사고로 머리와 목에 통증을 느껴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받았다. 강남과 함께 무대에 오를 예정이던 가수 태진아는 홀로 일정을 소화한 뒤 강남이 후송된 병원을 찾아 서울까지 동행했다. 강남의 소속사 관계자는 “다행히 큰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며 “후유증을 고려해 30일째 정밀 검진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남은 최근 태진아와 듀엣곡 ‘장지기장’을 발표하고 함께 활동중이다.